

맛따라 맛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만산홍엽(滿山紅葉). 가을 나들이객을 유혹하는 단풍의 계절이 돌아왔다. 금강산과 설악산에서부터 남하를 시작...

39 남도 단풍축제

울긋불긋 단풍의 향연 "아차하면 늦으리..."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 31일-11월2일
삼홍의 유혹...주민·관광객 함께 화합 한마당

지리산의 울창한 원시림과 깎아지른 계곡이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는 피아골 연곡사 일원에서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간 '삼홍과 함께하는 오색단풍 여행'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첫날인 31일엔 연곡사 지구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문체체육공연과 피아골 한마당 군민장기자랑 행사가 열린다.

이어 1일에는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표고막터에서 열리는 단풍제례 행사를 시작으로 좌도농악공연과 잔수농악공연, 단풍숲속 음악회, 뿌리에술단 공연, 피아골 화합마당 등이 펼쳐진다.

마지막날인 2일에는 지리산 피아골 전국등산대회가 열리며, 단풍길 걷기와 단풍 사생대회, 비보이 공연, 커플 경연대회, 등산객 장기자랑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또 체험행사로 단풍 소원 리본달기, 단풍 숲 즉석 사진이벤트, 단풍 추억 낙서판, 단풍 페이스 페인팅, 단풍 야생화 압화 만들기, 지리산 곤충 체험, 전통인절미 떡매치기, 밤·고구마 구워먹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장성 백양 단풍축제 11월1일-11월2일
양증맞은 '애기 단풍'...단풍 등산대회 개최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백양사와 백암산 일대에서 오색단풍을 배경으로 열리는 이번 단풍축제는 그동안의 관 주도형 축제에서 벗어나 민·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화합형 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장성 백양 단풍은 우리나라 자생 단풍으로, 천연기념물 제153호인 백양사 비자나무 숲과 회백색 바위 그리고 홍시감 등과 어우러져 오색빛깔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곳의 단풍은 일명 '애기단풍'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단풍잎의 크기가 어른 엄지손톱만하거나 크더라도 어린이 손바닥 정도에 그치는 등 전체적으로 작고 귀엽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다.

축제 첫날인 1일에는 개막행사인 퓨전 타악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전국 단풍 등산대회, 단풍제 양상불, 7080 라이브공연, 산사음악회, 달빛걷기 및 대금 향연이 펼쳐진다.

대흥사 단풍 체험축제 11월7일-11월9일
두륜산 오색단풍...가요제 등 부대행사 풍성

팔골 해남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두륜산 대흥사에서는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올 가을 마지막 오색단풍과 함께 하는 가을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개막일인 9일에는 비트2008두드림공연을 시작으로 남도전통 품바공연과 KBS빛고를 가요차차차 행사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널뛰기와 투호 등 전통놀이체험과 농산물 체험, 오색단풍 숲속 가족사진 무료 촬영, 오색단풍 책갈피 만들기, 대흥사 명소 온천·케이볼카 체험, 도토리묵·손두부·녹두전 만들어 먹기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늦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장성 백양사를 찾은 등산객들이 타오르는 불처럼 붉게 물든 백양사 일대 단풍 숲길을 걷고 있다.

도심속 낭만의 단풍 길

광주 무진로·기아로 등 가을 정취 물씬

단풍 명소를 찾아 일부러 산과 들로 떠나지 않아도 광주 도심에서 오색 단풍과 낙엽의 향연을 만날 수 있다.

광주시에 2005년부터 '1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으로 조성한 무진로와 윤천로, 기아로 주변 가로수가 곱게 물들어 가을 정취를 물씬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도심에서 오색 향연을 접할 수 있는 가로는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앞~광산구 평동산입단지 입구에 이르는 무진로와 서구 치평동 전남체신청 앞에서 금호지구 사거리까지 윤천로, 백운광장~남광주역사간 대남로 등이 대표적이다.



서구 치평동 전남체신청 앞에서 금호지구 사거리까지의 윤천로.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의 시선을 가을빛으로 채워준다.

특히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앞의 가로수터널과 윤안동 문화예술회관 주변 가로수는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의 시선을 가을빛으로 채워준다.

광주시에 기아로와 윤천로 등에 심어진 느티나무에 이어 은행나무와 팽나무 등이 곱게 물드는 다음 달쯤 단풍이 절정에 달해 장관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2015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맑고 푸른 생태도시 건설'을 목표로 1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 올 상반기까지 565만 그루를 심어왔다.

시 관계자는 "나무심기 사업으로 숲이 우거진 도심에서 푸르름과 단풍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구태여 명소를 찾아 나서지 않아도 주변 가로와 공원 등에서 가을의 정취를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S.J. TOURS'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with prices and descriptions. Includes a cartoon bear character and the slogan '제주의 모든것 S.J 투어몰'.